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어 주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은 한국불교의 기틀과 중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세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만들어 온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젊은 불교, 미래 불교의 기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장엄한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인간 소외 속에서 불교는 중생들의 고통에 화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과 사회적 실천에 현대불교신문이 신행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모두의 서원이자 염원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시대와 부합하는 새롭고 참신한 기획과 콘텐츠로 사부대중을 이끄는 문서포교의 큰 법당이 되어주시길 염원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법과 문서 포교에 진력해 오신 현대불교신문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30년, 한결같은 원력과 정성을 이어왔듯 새롭게 펼쳐나갈 한국불교의 미래에 늘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눈부신 내일과 굳건한 성취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다라 세계 열도록 정진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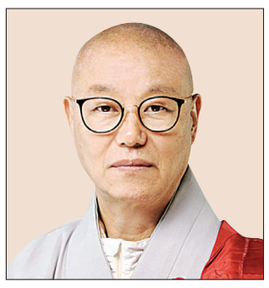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표방합니다.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면서 30년을 한 결 같이 정진해온 지난 역사는 불교계와 언론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 신행의 길잡이이자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는 불교정론지 현대불교신문은 한국 불교의 발전과 불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역할도 톡톡히 해왔습니다. 처소를 구분하지 않고 발로 뛰는 취재를 하며 뭇 생명의 차별 없이 누구나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교화하는 신행포교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창간 30주년을 넘어 더 나은 미래와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할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찬란한 문화와 유산을 지키고 전승하는데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교문화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확장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고 깨우쳐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 세계가 활짝 열리도록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제자 길잡이 되어 달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한 세대를 가름하는 기간을 대개 30년으로 삼아 구분하는데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변화기에 함께 한 한 세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정론직필의 의무와 사명감을 이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정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난립한 현대사회에서 사실의 진위와 내용의 함의를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이 가지는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가 가지는 창간목표는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가치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슬기롭게 구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길라잡이의 역할이 절실하고 모쪼록 한 세대를 지나 온 경험과 지혜로 현대불교신문이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립니다.

'눈 오는 날 나의 발자욱이 훗날 뒤따르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는 선시의 구절처럼 지금 한 세대를 지나 또 다른 미래의 세대를 여는 현대불교신문의 발자욱이 모든 불제자의 정도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경책과 목탁 같은 언론 되어 주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천태종 250만 불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 교리 △불자들의 신앙생활 △불교 종단 및 단체의 활동 등을 불교계 안팎에 널리 알리며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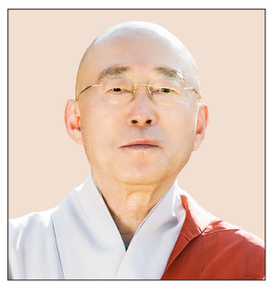
특히 창간 직후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개원하고, 정보화·디지털시대에 발맞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불교언론으로써 보여준 선도적이면서 과감했던 모습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언론을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불교계에 경책(警策)이 되고, 우리 사회에 목탁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가는 정론직필의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진실한 말 전하는 정론지 되어 달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대한불교관음종 종도들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불교 외호와 불법홍포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4년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스님의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각 종단 및 전국 사찰의 소식과 불자들의 신행·포교 현장 등을 독자대중에게 전해왔으며, 심도 있는 기획기사와 연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불교계 최초로 인터넷 뉴스를 시작했던 점도 현대불교신문이 보여준 성과입니다.

30년의 노하우와 저력이 있기에 현대불교신문의 향후 30년도 기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은 첫째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라고 설하셨습니다. 불법홍보와 불교 외호를 위해 기사를 다루는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경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서른 살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언론이 본연의 자세를 되새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이 현대불교신문도 오탁에 물들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정론지가 되길 바랍니다.

창간정신 되살려 자랑스런 언론되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속의 지혜로 가득 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창간정신으로 한결같이 신행과 수행을 돕는 언론으로 성장해온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신뢰와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요구를 지혜롭게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바르게 지향해왔습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교계 정보화의 마중물이 되어왔으며,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중중무진의 원력으로 불교 언론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왔습니다.

종단과 승속을 가리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포교 기능을 토대로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가치 있고 참된 삶의 벗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밀교의 교의와 사상도 널리 알림으로써 불교총지종이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불교가 보내주신 관심과 협력에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가 30년 전의 창간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언론으로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